

# 고령화 사회와 여가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Leisure Policy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ging Society

서 용 건\*

(Suh, Yong-Kun)

### 목 차

- I. 서 론
- II. 노화, 어떻게 볼 것인가?
- III. 여가는 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 IV. 정책적 제언 - 무엇이 필요한가?

### I. 서 론

한 국가 인구구성의 변화는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여성의 출산율이 1.08명으로 전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나 이미 2000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한 현실 (2007년 현재 전체인구의 9.9%인 481만명)은 이미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혹자는 현재 한국의 고령화 상황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화 속도이다. 피터 피터슨(Peter G. Peterson)<sup>1)</sup>은 세계에서 한국 사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2019년에는 65세이상 노인이 14.4%로 고령사회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1)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2002)' (원제 : Gray Dawn)의 저자이자 Chairman & CEO of Blackstone Group

(aged society)가 되고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가 되며 고령화사회(2000년)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불과 19년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는 일본의 24년, 영국의 47년, 캐나다의 65년, 미국 71년, 프랑스 115년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짧다. 이는 2000년에는 근로 연령 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던 것이 2026년 무렵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단기간에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의 부정적 영향도 짧은 기간 내에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7)<sup>2)</sup>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며 파급효과를 거시경제적 측면, 금융시장 측면, 기업경영 측면,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측면에서 제시하였는데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총인구가 2019년부터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2017년부터 진행되며 동시에 이 인구층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각 개인이 소비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2%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으로 총저축률도 감소하며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로 국민실질 순저축률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부담 및 임금상승 등 기업의 부담 증가로 R&D나 신규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자본증가율 감소를 포함한 총저축률 감소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는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요요인이 될 것이며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 5% 수준인 국내총생산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3%, 2030년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노동투입요소의 감소로 직결되므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고 피부양인구 비중의 상승은 저축률 하락을 초래하여 자본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소득은 감소하지만 소비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유자산이 감소하지만 한국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장년층 이상으로 가면서 주택으로 대표되는 실물자산의 비중이 금융자산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주택을 구입한 고령층의 경우 금융자산의 보유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은행의 PB (Private Banking), 보험사의 변액보험 등 자산관리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으로부터 유입되는 방대한 자금으로 인해 자산 운용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 한일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2007, 8)

셋째, 고령화가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인구구조가 시장 수요를 변화시킴으로써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인력부족에 대응해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만간 고령화현상이 기업에게 가장 큰 변화와 도전 또한 기회요인이 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마케팅 인력과 노년층에 대한 수요와 지식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기업들 특히 대기업에서는 사회전반적인 고령화 문제보다 내부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인건비 부담이나 조직활력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정부정책변화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앞으로 이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표적인 인력 고령화 문제해소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성과주의 인사제도, 조기퇴직과 자산관리 및 라이프 컨설팅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2020년 이후에 현실화될 전망이며 이 연금이 노인복지 기능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국민연금 개혁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이 노인복지를 위해 쓰이고 있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2003년 이후 국민연금 개혁의 성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이며 정부는 노인들의 입원비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다. 정부는 노인수발 보험제도와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 등재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를 일부 해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책이외에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고령화 정도가 진전된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이들 사회는 이미 근로인구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연방예산에서 노인 한명에게 지불되는 급여는 어린이 한 명에게 나가는 돈의 열배나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불되는 예산은 1만5636달러 (의료혜택 5514달러, 연방연금 1157달러, 사회보장 8136달러)이고 18세 이하에게 지불되는 예산은 1693달러이다. 피터슨은 노인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누가 이들을 부양해야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데 노인부양은 미덕이지만 경제학적으로 이는 소비이며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일종의 투자에 해당하는데 소비와 투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

형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근로인구는 노인들의 부양을 위해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현재 선진국의 경우 납세 근로자와 연금 생활자의 인구비중은 3대1인데 문제해결을 위한 철저한 개혁이 없다면 이 비율은 1.5대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탈리아나 독일 등 일부국가의 경우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곧 근로인구 한 명이 일해서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연금과 의료보장비용이 큰 비중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연금과 공공지출의 합계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경우 1995년에 10.5%가 2030년에는 17%, 일본은 11.5%에서 2030년 23.1%, 독일은 17.3%에서 2030년 28.8%, 이탈리아는 19.7%에서 2030년 33.3%로 늘어난다. 선진국클럽인 G-7국가들의 경우 국방, 교육,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투자된 공공지출은 GDP의 8.1%이다.

대다수 선진국들에서 세금과 준조세부담을 포함한 총액은 소득의 40%정도인데 늘어나는 노인들의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국내총생산의 9%-16%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액수는 미국 국방비 지출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로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소득의 40%이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의 25%에서 40%를 부담해야 하는데 누가 이런 가혹한 조세를 감내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 피터슨은 '고령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후기노인(85세 이상 노인)의 수는 젊은 노인(65세-74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40년 무렵이면 젊은 노인 인구는 80% 증가하고 후기 노인의 수는 2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노인의 수는 1900년에 37만4천명, 2000년 400만명, 그리고 2040년에 2620만 명으로 예상된다. 2040년이 되면 80세 이상 미국인은 3배로 증가해서 초등학교의 예상숫자인 2500만명을 초월할 전망이다. 후기노인 한명에게 필요한 개인당 건강비용은 젊은 노인의 약 3배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령화와 상관없이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고령화 문제가 기우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고령화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일수록 저출산 추세라는 뚜렷한 사회적 현상을 겪고 있다. 어느 사회든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총 출산율은 모두 2.1이하이다. 미국 2.0<sup>3)</sup>, 영국 1.7, 프랑스 1.6, 일본 1.4, 독일 1.3, 이탈리아 1.2이다.

3) 미국은 상대적으로 고령화 정도가 낮고 출산에 따른 고용불안 부담이 적고 구직과 재취업, 근무시간 조절 등이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유지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역전될 가능성은 또한 매우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이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고 나아가 경제, 사회, 기술적인 요인들이 인구감소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병호, 2006)<sup>4)</sup>.

저출산 추세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현대사회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0년 전에는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가임여성들은 평균 5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지금은 2.7명 수준이며 선진국은 1.6명이다. 이 비중은 20-30년 후에는 1.3명의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일본이 1.4명, 독일 1.3명, 이탈리아가 1.2명 수준이며 한국은 1.08명(2005년)으로 세계최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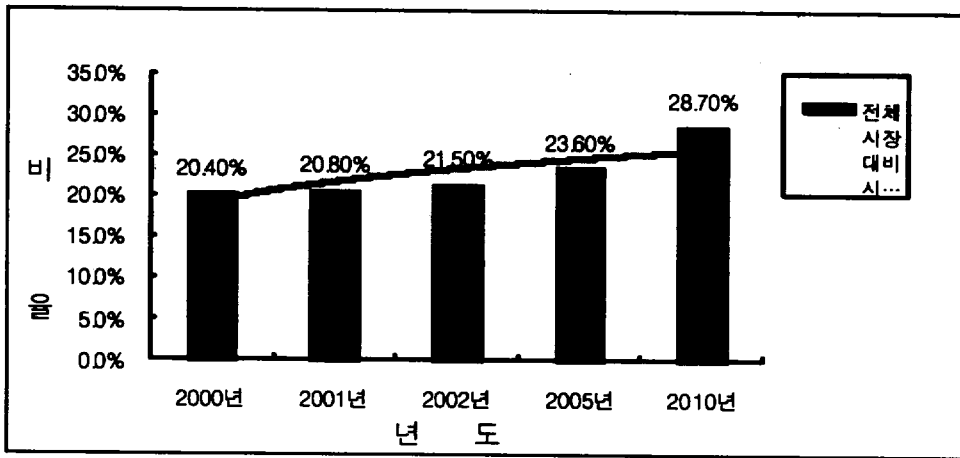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 본 고령사회에 대한 미래 전망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부정적인 면만 있을까하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이미 한국보다 고령사회로 먼저 진입한 일본과 같은 나라의 추세를 보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성장 하는 시니어시장(senior market)을 통해 주거, 의료, 보건, 여가, 금융, 제품 및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실버산업(the industry for the elderly)활성화라는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sup>5)</sup>에 따르면 2007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430만명이며 2010년에는 530만명, 2020년에는 7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약 3억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과거의 1,2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 발생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고 개도국에서도 경제상황이 점차 향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년 후에는 그 수가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실버산업(고령친화산업)의 경우 노동집약적 취업 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55세 이상의 인구가 미국 자산의 약 55%를 소유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가처분소득이고 한국의 경우도 현재 실버소비자 시장은 근대화 추진이후 부를 쌓아 온 첫 번째 세대이며 연금제도의 확대, 지속적인 소비절제를 통한 부의 축적, 주택소유 경향에 따른 부동산의 보유 등에 의해 전체인구 중 보유재산 또는 가처분소득의 크기가 가장 큰 시장이어서 65세 이상의 소비자 시장은 기업에게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김숙용, 이의훈, 2007)<sup>6)</sup>. [그림 1]은 50세 이상 광의의 실버 소비자 시장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5년 전체 인구 대비 구성비는 23.6%이며 2010년에는 28.7%로서 전 인구의 거의 1/3을 차지하게 되어 기업이나 정부로서도 시니어계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4) 공병호의 독서노트 - 미래편, 21세기 북스

5) 보건복지백서,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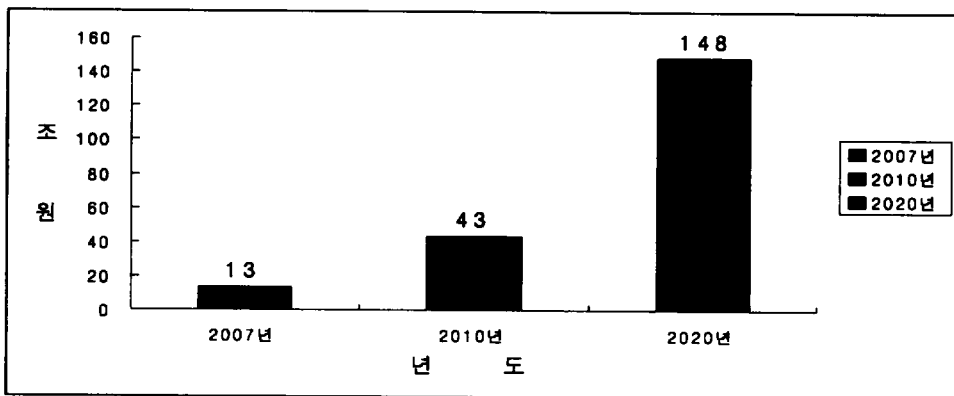
6) 실버산업의 이해, 형설출판사



자료 : 통계청, "연령별 인구추계"(2002)

[그림 1] 한국 50세 이상 실버소비자 시장의 크기

현재 한국의 공공부문의 노인복지는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실버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실버산업을 어느 범위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실버시장의 규모는 달라지는데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실버시장 규모는 2007년 13조원에 이르며 연금도입 20년이 되는 2008년부터는 정규수혜자들이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함에 따라 2010년에는 43조원, 2020년에는 14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층별 보호시책 '노인부문」 (2002.2)

[그림 2] 국내실버즈니스 시장 전망

아울러 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건강한 노년층의 경험, 기술과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매년 늘고 있는 노동력이 2010년에는 0.4% 줄어들 전망인데 7,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의 은퇴가 임박하면서 이들에 대한 재취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55세 근로자는 은퇴를 위해 평균 5만 달러를 저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년 더 일하면 비과세 계좌를 5만달러 더 늘릴 수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이에 메릴린치의 조사결과 성인 71%는 61세를 전후해 새로운 직업을 찾겠다고 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65%는 은퇴이후 다른 분야에서 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US News & World Report, 2006, 5, 12).

따라서 개인, 기업, 정부가 고령화 추세를 잘 이해하고 이에 잘 대처한다면 실버산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반대로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고령사회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국가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 II. 노화, 어떻게 볼 것인가?

평균수명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60여 년 전인 2차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전 인류의 기대수명은 45세였지만 지금은 65세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같은 기간동안 선진국의 기대수명은 75세까지 연장되었다. 경제, 의료, 기술적인 요인들에 의해 앞으로 30년 내 기대수명은 최소한 7-8년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령 사회에 대한 여러 전망은 전반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있으나 사회역동성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는데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전망을 떠나 우리사회가 노인 또는 노화(aging)에 대한 시각이 왜곡된 측면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즉, 이 시점에서 한 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노인이 된다는 것, 즉 노화(aging)가 과연 그토록 부정적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21세기 경제패러다임의 특징을 말할 때 불확실성이 높다고 하지만 동서고금을 통해 인류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 노인이 되고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자연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는 노화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시각이다. 미국 Clemson 대학의 여가학자인 McGuire 교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는 생명주기상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노화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ging is a natural part of the life cycle, accompanied by advantages as well as losses). 이제는 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서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노인과 여가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Palmore (1990)<sup>7)</sup>는 노인 (또는 노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시각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긍정적 고정관념 (Positive Stereotypes)

- 1)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관대하고 온화하다
- 2) 대부분의 노인들은 풍부한 인생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롭고 현명하다
- 3) 노인들은 젊은이에 비해 더 신뢰할 수 있다
- 4) 노인들은 재정적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다
- 5) 노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는 좋다
- 6) 노인들은 여가시간이 많다
- 7)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인식 제고에 힘입어 건강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다
- 8) 노후는 인생에서 열심히 일한 후 찾을 수 있는 평화로운 시기이다

■ 부정적 고정관념 (Negative Stereotypes)

- 1) 대부분의 노인들은 지병을 갖고 있다
- 2) 대부분의 노인들은 성적 기능이 거의 저하되었거나 욕구가 없다
- 3) 늙음 자체는 추하다
- 4) 중년이후로 지적능력은 저하 된다
- 5) 노인들은 모든 면에서 노쇠한 사람들이다
- 6) 노인들의 효율성은 젊은이에 비해 현저히 낮다
- 7) 대부분의 노인들은 외롭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 8) 대부분의 노인들은 재정적으로 어렵다
- 9)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비판적이다

■ 긍정적 태도 (Positive Attitudes)

- 1) 일부사람들은 은퇴이후를 인생의 황금기로 인식한다

7) Ageism : Negative and Positive (1990), New York : Springer



2)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에 대한 태도를 갖는다

■ 부정적 태도 (Negative Attitudes)

1) 인생의 황금기를 60-70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2) 많은 사람들은 노후(60-70대)를 신체적 측면(건강), 사회적 측면(외로움), 재정적 측면(재산)에 있어 최악의 시기로 인식한다

3) 어린이들은 젊은이와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

4)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혼재되어 있으나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다

요약하면 노화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성숙하고 발전하며 동시에 쇠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Ⅲ. 여가는 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앞으로 인구구조가 고령사회가 될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우리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현황을 살펴보면서 여가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Clemson 대학 여가학자인 McGuire<sup>8)</sup>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노후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방정식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text{Successful Aging} = \text{Health} \times \text{Meaningful activity} \times \text{Being needed} \times \text{Financial security}$$

즉 건강, 활동성, 사회참여 와 경제적 안정성을 말하는데 각 요소에 있어 여가활동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신체적 측면인데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보건위생환경 등의 생활수준의 개선과 의학, 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78.6세(2006년)지만 건강수명은 68.6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 Leisure & Aging: Ulyssean living in later life, Sagamore Publishing (1996)

일생동안 10년간 질병, 사고로 인한 후유증, 신체적 불편, 우울감 및 정서적 불안에 시달린다는 의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sup>9)</sup>에 따르면 남성의 기대수명은 평균 75.1세지만 건강수명은 67.5세로 7.6년 차이가 있으며 여성의 기대수명은 81.9세지만 건강수명은 무려 12.3년이나 낮은 69.6세였다. 건강수명은 말 그대로 심리적, 육체적 불편함이 없이 활동하며 살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건강수명을 늘리는 일이 국가보건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노년층이 신체적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은 각 종 조사에서 나타난다. 국내 시니어파트너스(Senior Partners)<sup>10)</sup>와 일본 시니어커뮤니케이션가 한일 양국의 50-60대를 대상(한국 500명, 일본 813명)으로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관심사는 건강, 자녀결혼, 재산증식, 취미활동 순이고 일본 노인의 경우 건강, 가족관계, 직장/일자리, 재산증식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으로는 가벼운 운동, 산책, 등산,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74세까지는 운동으로 주로 건강 유지를 하는 반면 75세를 넘어가면 운동량이 줄고 약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의학적 연구는 노인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건강유지 또는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운동량이 줄어드는 75세 이상의 경우 여가활동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Guire etc, 1996).

두 번 째로 경제적 측면으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층이 비경제 활동층에 속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선입견이자 과거의 고정관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40여년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도시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344만3천원(4인 가족 기준)이상으로 높아졌고 개인편차는 물론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노인계층의 재무상태는 양호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김숙웅, 이의훈,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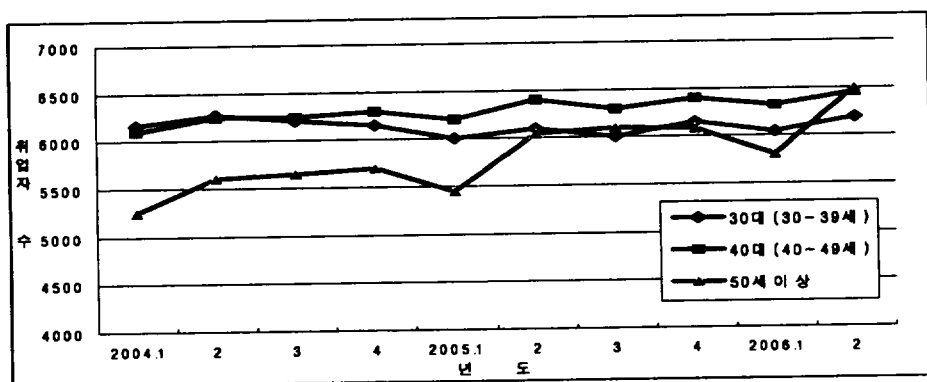
노인계층의 80%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세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기초적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는 연금은 누구나 매월 받게 된다. 나아가 예비노인계층인 55세 이상의 인구층은 노후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버계층은 보다 더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9) 한국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기대여명 (2007)

10) 한·일 시니어의 인식 및 행동비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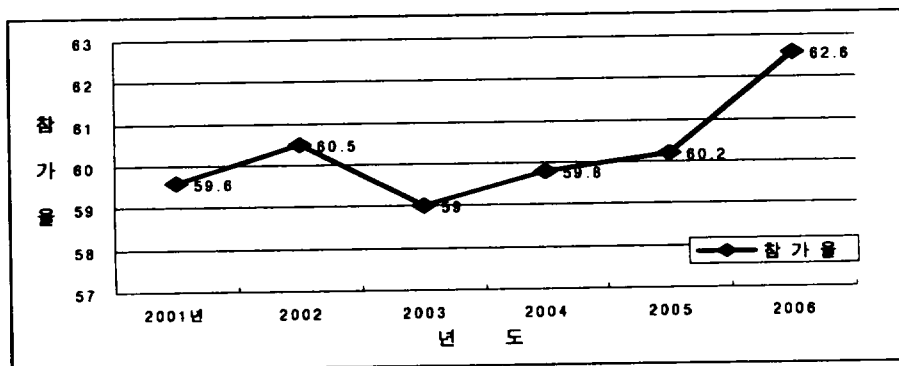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04년 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수급자는 총 582,000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의 약 14%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2010년 183만명, 2028년에는 약 80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8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예비노인계층인 50대의 취업자 수는 30대와 40대와 비교해 볼 때 2006년도를 기준으로 649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전에는 가장 낮았으나 증가폭이 가장 많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년층이 경제활동에 참가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구매력을 갖는 시장의 형성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학력이 높은 신세대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율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3] 및 [그림 4]



출처 : 조선일보, 2006.07.18

[그림 3] 연령별 취업자수 추이



출처 : 중앙일보, 2006.08.04

[그림 4] 55세~64세 경제활동 참가율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2007)을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나 지출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규모도 매우 커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표1>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노인계층 가계소비 규모는 2010년에 1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 1> 전국가구의 가구주연령별 가계수지

구 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소 득	2,570.8	3,234.5	3,337.5	3,463.6	2,105.6
가계 지출	2,033.2	2,588.5	2,810.0	2,665.0	1,705.3
처분가능소득	2,319.4	2,588.5	2,888.8	2,958.7	1,916.7
흑자액	537.6	646.0	527.5	798.6	400.2
흑자율	23.2	22.9	18.3	27.0	20.9
평균소비성향	76.8	77.1	81.7	73.0	79.1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2007)

경제 패러다임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도 소극적 개념에서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미 한국사회보다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 유럽 등의 국가의 경우 노인들에게 과거 청년과 장년층 시절에 시작한 여가활동이 노년기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업이 되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노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계층이 곧 노인계층으로서 인식되어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 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2010년 전후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다양한 여가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는 곧 노인계층이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sup>11)</sup>에 따르면 이 시장규모는 2000년 17조원에서 2005년 약 27조원, 2010년에는 약 41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sup>12)</sup>에 의하면 국내 실버산업은 201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8년을 전후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50년대 중반 - 70년대 초반 출생) 소비층이 가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 계층별 보호시책 (2002)

12)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과 전망 (2006)

특히 여가 및 관광분야는 노인들의 잠재수요 1위인 분야로서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할수록 여가부문에 있어 노인들이 소비와 생산을 하는 주체로서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표 2>

<표 2> 은퇴 후 가장 하고싶은 것

	여행	여유시간 만끽	가족,친구와 친목도모	새로운 취미활동	자원 봉사	소비 생활	새로운 일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은 것	89	85	83	79	74	69	51

출처 : HSBC, “은퇴의 미래” (2006)

끝으로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 노인과 비교할 때 현재 노인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확실히 새로운 관점과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숙명여대 실버마케팅연구소<sup>13)</sup>자료에 의하면 현 노인층의 여가(leisure)에 대한 인식은 일(work) 보다 우선 하는 것이며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 된다 (김숙웅, 이의훈, 2007).

여가활동이 노인들에게 사회 심리적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규명되어져 왔다 (Tinsley & Teaff 1983<sup>14)</sup>; George 1990<sup>15)</sup>; Kelly & Godbey 1992<sup>16)</sup>; Driver, Tinsley, & Manfredi 1991<sup>17)</sup>). 예를 들어 Driver, Tinsley 와 Manfredi는 여가활동이 사회 심리적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Paragraphs About Leisure (PAL)로 불리는 척도를 만들어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기표현(self-expression), 동료의식(companionship), 권한(power), 보상(compensation), 안정감(security), 봉사(service), 심미적, 지적 충족감(Intellectual aestheticism), 독립심(solitude)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13) 숙명여자대학교 실버마케팅연구소 (2001)

14)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leisure activities for the elderly; A manual & final report of an investigation,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5) Handbook of aging & the social sciences, San Diego; Academic Press

16) The sociology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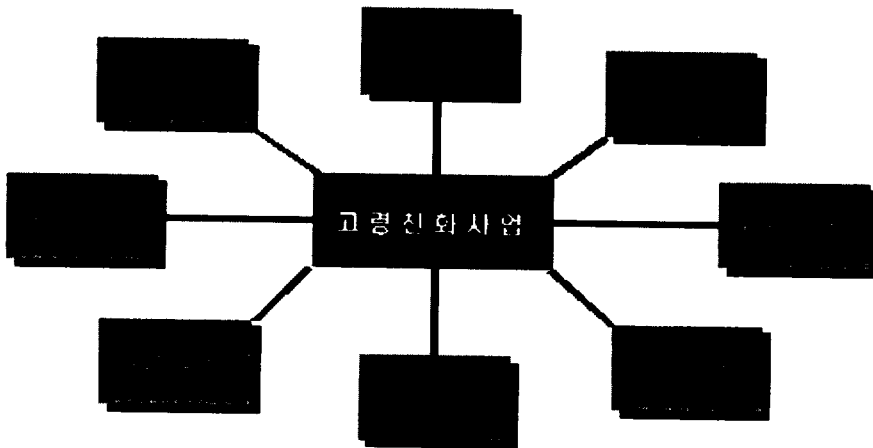
17) Benefits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Press

#### IV. 정책적 제언 - 무엇이 필요한가?

이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까지 제시된 정부정책을 살펴보고 개선할 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한국의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이미 198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잠재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여 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1983년에 이미 한국의 합계출산율<sup>18)</sup>은 2.08명으로 인구유지(대체)에 필요한 2.1명 이하로 내려갔다. 그 후 계속 출산율은 하락했음에도 정부는 과거의 산아제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1990년대 들어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가속화되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기본정책을 세운 것은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장관 12명과 민간 전문가 12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실무적으로 대책을 추진 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이 정책본부에서는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년-2010년)을 수립하였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정부 대응이 늦었던 이유는 우선 이러한 인구통계적 변화를 제대로 지적하고 이의 파급효과를 공론화하지를 못했고 실제로 변화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빨라 누구도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림 5] 고령친화사업 분류

보건복지부는 2005년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현상을 산

18) 15-49세 가입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아기의 숫자

업 정책적 차원에서 분류하고 부문별로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그림 5] 및 <표 3> 여기서 여가산업의 전략품목은 고령친화휴양단지만 제시되어 있듯이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여가부문에서 하드웨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요소(노인 여가 프로그램 등)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표 3>고령친화산업 부문별 19개 전략 품목

부문	전략 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 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 보조기기, 노인용 콘텐츠 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 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 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항노화 한방기능성 식품, 노인용 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 한약 제제 개발
농업산업	고령친화 귀농교육, 전원형 고령친화농업 테마타운, 은퇴농장

자료 :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2005.01)

아울러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시설분류(1988년 노인복지법시행령)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나누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무료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 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무료, 실비, 유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 속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 포함되며 재가노인복지사업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이 있다.

나아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수용능력도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버계층의 증가에 따른 대응은 전체적으로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앞서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02)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실버산업의 유형과 유망분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관광을 위주로 한 여가부문이 유망분야로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상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나아가 각 유

망분야별로 라이프사이클, 시장규모 및 성장성, 그리고 정부정책의 영향성 등을 평가했는데 관광분야는 노인주택, 공공장소 장애인용 시설, 노인용 건강보조기구 등과 함께 어느 정도 정부정책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표 4>

<표 4> 실버산업의 유형

분야	영역	부문	내용
금융	서비스	상품	공적연금, 사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 부양보험, 노후대비 연금형 보험
		서비스	신탁, 부동산 관리
여가	서비스	여가활동부문	최고록출판, 논문발표회, 출판기념회기획, 우편물발송대행, 집필대행, 잡지출판, 스포츠, 취미생활, 오락, 관광
		사회활동 부문	취업, 교육, 직업 알선
의료·보건	시설	병원 부문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 치료병원
	용품	제약 부문	노인성 질환약품, 의료전문기기, 간호용품
	서비스	의료정보 부문	병원관리, 의학정보, 건강체크프로그램
		인력파견 부문	의료요원의 알선, 파견
주거	시설	주거시설 부문	유료양로원, 3세대 주택, 주택 개량, 실버 타운
	서비스	주택 서비스	간호 서비스, 급식 서비스, 간호용품 렌탈서비스, 청소, 세탁대행
노인용품	제품	의류부문	일상복, 정장복, 환자복, 스포츠의류, 기타
		식품 부문	건강 식품, 기호 식품, 치료식, 예방식
		생활용품 부문	가전 제품, 일상용품, 가정의료용품, 의료보조용품
	서비스	서비스	실버시티, 노인전문음식점, 노인카페, 실버전용사이트 등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재구성

요약하면 실버산업의 기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여가산업(Leisure, Recreation & Tourism Businesses)
- 2) 금융산업(Finance Business)
- 3) 의료, 보건 관리산업(Health care Businesses)



## 4) 주거관리산업(Housing Business)

## 5) 노인용품 판매 및 서비스산업(Goods &amp; Services for the elderly)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여가 및 관광분야는 대표적인 실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직장인에서 은퇴자로 역할이 바뀐다. 일부 노인들의 경제능력이 빈곤 수준에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우 55세이상의 실버층이 미국 자산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높다. 비휴가 시즌에 외국의 관광명소 방문객들의 대부분이 이들은 은퇴나 반은퇴 실버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단적인 예로 크루즈여행의 80%이상이 실버층이다. 많은 비용과 2-3주의 시간을 내어서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층은 실버계층 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크루즈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김숙용, 이의훈, 2007).

2006년에 수립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제시된 고령사회에 대비한 여가문화 활성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현황

•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는 종교단체(47.9%)와 사교단체(35.5%)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활동(3.9%)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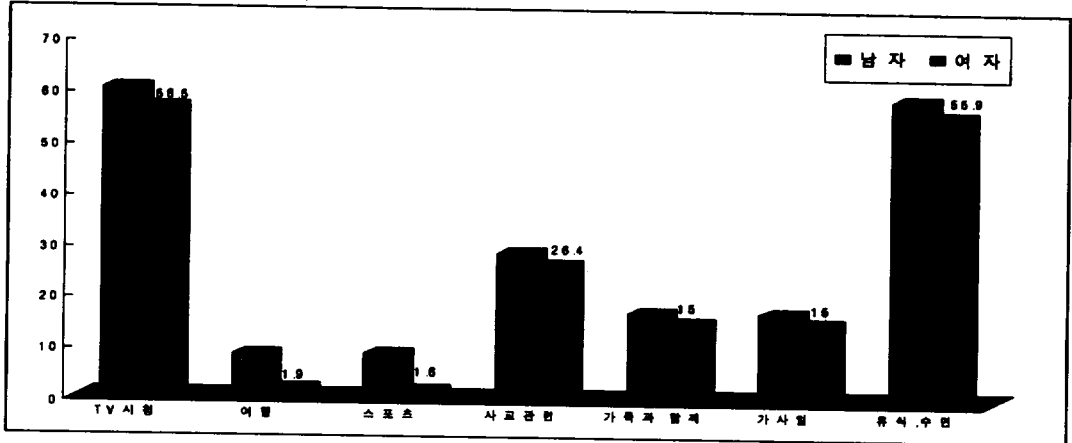
&lt;표 5&gt;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단체 가입률

(단위 : %, 명)

구분	종교단체	사교단체	문화활동	운동단체	정치단체	대상지수
전체	47.9	35.5	0.9	3.9	2.1	3,029
남	32.3	50.5	1.7	7.9	4.4	1,171
여	57.7	26.1	0.4	1.3	0.5	1,858
65~69세	47.1	52.8	1.2	5.8	2.9	1,215
70~74세	49.1	32.9	0.9	3.8	1.9	902
75세 이상	47.8	15.1	0.7	1.4	1.1	912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2005)

-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생활은 매우 소극적이며 활동성이 낮음
  - TV시청, 휴식 및 수면 비율이 높고 자기계발은 부족
  - 다양한 노인시대 수요(Needs)를 고려한 여가문화프로그램 미흡



출처 : 통계청, 2005고령자 통계,(2005)

[그림 6] 주말 및 휴일의 여가활용방법

### ◎ 추진계획

-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에 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여건 조성
  - 고령인구가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실버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료 지원(문화바우처와 연계)
  - 한방의료 센터, 온천 및 휴양림 등 고령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 조성
- 문화예술활동의 소비자에서 '생산자'(Prosumer)로서의 노인 역할 제고
  - 지역별 전통을 발굴하고 정리하는데 지역의 고령인구 활용
  - 고령친화형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추진
    - 재활치료게임 등 기능성 게임, 에듀테인먼트 개발 지원 등 노인친화형 문화프로그램 기획 개발 지원
    - 3세대 가족 e-스포츠대회 및 가족 게임캠프 개최 등 세대통합형 참여 프로그램 확충

### ■ 노인 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활용

- 지방문화원 등을 활용한 실버문화 노인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 노인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노인역량강화 및 고용대비 강좌 신설
  -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노인관광 전문가 등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향토 역사문화 해설가 등 다양한 자원봉사분야 개발 및 재취업 기회 제공

지금까지 살펴 본 현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한국사회가 유례없이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고령사회로의 진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첫째, 시의적 측면에서 매우 느리고 정책적 중요도에서 너무 소홀히 인식해 왔고 둘째, 공간적 측면에서 협소하며 셋째, 지식적 측면에서 다양하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실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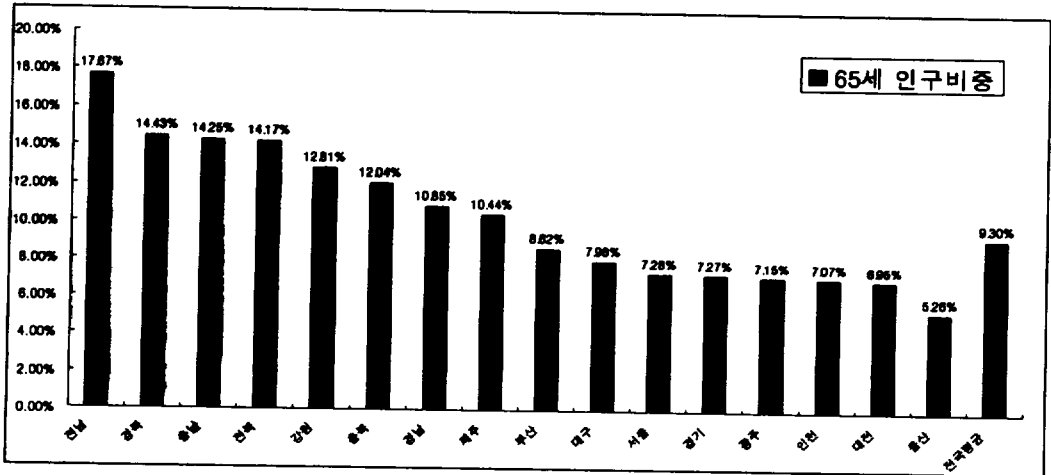
첫째, 시의적 측면은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책을 세우려는 과정에서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도 있으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고령화와 여가(leisure)에 관한 이슈는 정책적 중요도 측면에서 사실 너무 간과되어져 왔다. 따라서 이제는 본 이슈가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진정 우선적 아젠다(prior agenda)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령화와 여가가 더 이상 한가히 얘기하는 이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일을 삼아야 할 이슈가 되었다. 과거에는 이것이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사항으로 간과되었으나 이제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사회현상으로서 고령화와 여가는 그야말로 매우 광범위한 이슈이다. 하나의 정부 부처가 주무부처가 되어서 다들 정책이슈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처간 유기적 협력이 요구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정책과제들도 포괄적(exhaustive)으로 다루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지역간 노인인구와 여가복지시설 및 서비스간 불균형 해소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234개 시·군·구의 4분의1이상이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비중이 20%이상)로 진입했다.[그림 7]참조.

과거 40여년 동안 이루어져온 도시화와 이농현상 때문인데 노인 수와 복지시설 수용능력은

반비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방노인들에게는 노후에 새로운 재지생활을 하는 셈인데 예를 들면 호남권 시설은 수도권의 5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지역별 편중 해소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 통계청(2006)

[그림 7] 전국 시도별 65세 인구비중

끝으로 지식적 측면으로 이제는 다양한 실버계층별로 어떤 정책적 수요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트렌드에 근거한 수요자 중심의 역동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겠다. 지금의 고령화 현상은 병약한 노인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에 근거한 복지 차원의 단순하고 근시안적 관점에서 다루는 이슈가 더 이상 아니다. 많은 은퇴와 노후 관련 전문가들은 최고의老테크는 노후는 여분의 삶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이라는 노후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며 돈은 행복의 보조수단일 뿐임을 강조한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의 일중독(workaholic)적 성향의 문화에 익숙하다. 여가활동에 대한 학습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 은퇴나 반은퇴 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아울러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공병호(2006), 공병호의 특서노트-미래편, 21세기 북스.
- 국민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국방부 연금과(2004),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 김숙용·이의훈(2007), 실버산업의 이해, 형설출판사.
- 대한상공회의소(2006), 국내실버산업의 성장과 전망.
- 보건 복지부(2004), 보건복지백서.
- 보건 복지부(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2007), 한일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 삼성경제연구소(2002),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 서울신문(2005), 권역별 유료노인복지시설 수용능력.
- 숙명여대 실버마케팅 연구소(2001)
- 시니어 파트너스(2006), 한·일 시니어의 인식 및 행동비교.
-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2006~2010),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2006)
- LG경제연구소(2007), 시니어 가계 소비 규모 전망.
- 이인수(2005), 노인주거 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 조선일보(2006), 연령별 취업자 추이.
- 중앙일보, 55세~64세 경제활동 참가율
- 통계청(2002), 연령별 인구추계.
- 통계청(2005), 2005고령자 통계.
- 피터 피터슨(2002),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 한국경제신문(2007), 시니어 소비혁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한국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기대여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계층별 보호시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한국방송광고공사(2006), 실버세대 조사

HSBC(2006), 은퇴의 미래.

홍춘욱(2006), 인구 변화가 지도를 바꾼다. 원앤원 북스.

#### 외국 문헌

George, L. K (1990), Handbook of aging & the social sciences, San Diego; Academic Press.

Kelly, J & Godbey, G (1992), The sociology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Press.

McGuire, A., Boyd, R., and Tedrick, R (1996), Leisure & Aging; Ulyssean living in later life, Sagamore publishing.

Palmore, E (1990), Ageism : Negative & Positive, New York; Springer

Tinsley, H, and Teaft, J (1983), The psychology benefits of leisure activities for the elderly; A manual & final report of an investigation,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Tinsley, H, and & Teaft, J (1991), Benefits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Press.